

## 네트워크회의[유네스코 ICCAR 회의]

**인종차별과 차별에 대응하기 위한  
차세대 인재를 육성하는 도시들**

2022. 10. 12.(수) 19:00-21:30

주관: 유네스코(UNESCO)

**배경**

기후위기는 현 세대와 미래 세대 모두가 당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이다. 이러한 동 시대의 도전과제에 직면하여, 우리 사회는 집단 행동과 변화를 위한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청년들은 다음 세대를 위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원에 대해서 배울 의지가 있는 적극적인 참여 커뮤니티로서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도시는 반드시 사회의 모든 구성원, 특히,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더욱 강력한 시너지를 구축하고 육성해야한다. 도시는, 지역차원에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그들의 지역사회가 직면한 문제와 동시대의 도전과제 해결에 있어 청년들을 참여시키는 최전선에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도시에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며 인식을 제고하고 변화를 추구하는데 있어 청년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며, 이를 통해 도시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건설할 수 있다.

ICCAR 패널토의를 통해 포용 및 지속가능한도시 국제연합의 성과를 제시하고, 특히, 기후변화와 같은 현재의 도전과제를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인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기후변화를 해결하는데 있어 도시는 매우 중요한 공간으로 여겨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ICCAR 및 유네스코의 지역 연합은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를 건설하는데 있어서 기후 변화를 중심의제로 두고 이 분야에서 다양한 행동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준다. 무엇보다, 아태지역 차별반대 도시연합(Asia Pacific Coalition of Cities against Discrimination)은 재난 위험 완화를 핵심 의제로 삼고 도시차원의 포용적인 대응을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ICCAR 패널토의를 통해 다양한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도시가 다음 세대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 중에서도, ICCAR이 기획하여 이탈리아에서 7월 4일부터 9일까지 열린 포용 및 지속가능 도시를 위한 청년 부트캠프는 청년들이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도시 차원에서 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촉매제로써 역할을 할 수 있는 다면적인 플랫폼이 되었다.

청년들이 변화의 주역으로 거듭나도록 하기위해, 도시는 청년들에게 현재의 도전과제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도구나 열쇠를 줌으로써, 이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패널은 인식제고와 교육에 대해 청년을 포용하기 위한 ICCAR의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제시할 것이다. 그중에서도, 차별에 대한 유네스코 마스터 클래스 시리즈라는 틀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ICCAR의 협력을 통해 학생들이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청년 챔피언이 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차별 뒤에 숨어 있는 메커니즘을 깨트릴 수 있도록 한다.

## 목표 및 주요 논의사항

1. ICCAR의 성과를 분석하고, 현재의 도전과제를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 알아본다.
2. 도시가 갖는 의미와 청년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기후변화와 동시대의 도전과제에 대한 인식을 높인다.
3. 기후변화를 해결하고 이 과정에서 청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한 모범사례 및 전략들을 공유한다.

